

## 吳 勇 錫

(경성대학교 국제무역통상학과 교수)

성 명: 오 용 석(吳 勇 錫; Oh Yong-Suk)  
주 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동 69-10번지 이지빌라 나동 202호  
전 화: 연구실: 051) 620-4420; HP: 016-371-3403  
E-mail: yseo@ks.ac.kr

### 자라온 환경

1944년 11월 제주도 북제주군 추자면 예초리에서 吳幸局과 金福心の 4남 2녀 중 차남으로 태어났습니다. 本貫은 고려 고종 때 神虎衛大將軍 吳寧(同福君)을 시조로 하는 同福 吳氏 문중입니다. 조상들은 원래 서울에 살았으나 조선 숙종 때 南人에 속한 右議政 吳始壽가 庚申大黜陟으로 流配됨에 따라 일가가 해남도를 거쳐 추자도로 이주하여 살게 되었고, 黃嗣永帛書 사건으로 추자도에 버려진 黃嗣永의 아들 黃景漢을 거둔 집안이기도 합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 추자도에서 남제주군 표선으로 이사했고 3학년 때 다시 제주시로 이사하여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살았습니다.

1959년에 가톨릭에 입교하여 가톨릭 신앙의 영향을 받으면서 성장했습니다. 고등학교 재학 중에 가톨릭 사제가 되기를 원했을 만큼 신앙심이 두터운 편이고 가치판단의 기준을 성서와 교리에 따르는 신앙인의 생활은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성격은 매사에 진지하고 정의감이 강하다는 말을 들어왔습니다.

1963학년도에 대학입학국가고사를 거쳐 제주대학 장학생으로 입학했으나 가정빈곤으로 학업을 계속하지 못하고 군복무 후 생업에 종사하면서 가톨릭 신앙 활동에 전념했습니다. 1970년 2월에 제주도 교육감에게 기탁된 익명의 가톨릭신자 후원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서강대학교 경제학과에 입학했습니다. 학비는 대학성적장학금과 제주도장학회 장학금으로 충당하고 야간 아르바이트 등으로 부모의 생계를 돕는 등 비교적 힘들게 대학공부를 마쳤습니다. 다행히 우등(Cum Laude)으로 대학을 졸업할 수 있었고 졸업 후에는 서강대학교 유지 재단법인 한국예수회 사무국과 서강대학교 교무처 등에서 일했습니다. 이 때 만난 외국 신부님들과의 인연으로 해외유학을 생각하게 되고 그것을 위해 전공과 함께 중국어, 독일어, 프랑스어 등 외국어 공부를 한 것이 중화민국 정부장학금과 미국 유학 대학장학금 등을 받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현재 중국을 연구하는 학자로서의 생활을 할 수 있는 데에 밑거름이 되었지요.

## 略 歷

### 현 직:

慶星大學校 商經大學 國際貿易通商學科 教授(1979. 3 - 현재)

### 학 력:

西江大學校 經商大學 經濟學科 卒業(경제학사)  
中華民國政治作戰學校 政治研究所 卒業(법학석사)  
美國 Indiana University 大學院 卒業(경제학석사, 경제학박사)

### 경 력:

國土統一院 輔佐官(1977. 12 - 1978. 3)  
國際經濟研究院(KIEI) 責任研究員(1978. 4 - 1979. 3)  
對外經濟政策研究院(KIEP) 招請研究委員(1990. 1 - 1992. 2)  
經濟企劃院 經濟社會發展計劃 國際協力部門委員(1990. 9 - 1991. 8)  
UN 亞·太經濟社會委員會(ESCAP) 專門家그룹會議 韓國代表(1992. 12)  
韓國科學技術研究院(KIST) 國際科學技術協力센터 運營委員(1993. 6 - 1994. 5)  
東北亞地域研究所 所長(1993. 8 - 1996. 8)  
經濟正義實踐市民聯合 常任執行委員 및 統一協會 理事(1994. 5 - 1997. 4)  
韓國國際經濟學會 理事(1995. 3 - 1996. 2)  
韓國東北亞經濟學會 會長(1997. 3 - 1998. 2)  
韓國比較經濟學會 會長(1999. 3 - 2001. 2)  
社團法人 經濟正義實踐市民聯合 統一協會 理事(2001. 3 - 2003. 2)  
財政經濟部 中國專門家포럼 委員(2001. 9 - 2003. 8)  
全國經濟人聯合會 中國委員會 諮問委員(2002. 2 - 2004. 2)  
韓國產業銀行 開發諮問團 諮問委員(2006. 3 - 2007. 5 현재)  
기타: 中央大學校 大學院 中國地域學科, 每經-外大 中國專門家課程, Chinamax 中國專門家課程 등 초빙교수 역임

### 수상경력:

부산광역시교원단체총연합회 교육공로상(2006. 5. 10)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장관 교육공로표창(2007. 5. 15)

## 說問內容

### 1. 중국연구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무엇입니까?

→중국에 대한 관심과 대만 유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2. 교수님께서 수학하신 과정에 대해 듣고 싶습니다.

→1975-77년 중화민국 정치작전학교 정치연구소에서 중국공산당 및 대외정책전공으로 석사 학위 취득, 1981-85년 미국 인디애나 대학교 대학원에서 사회주의경제체제와 중국경제 전공으로 경제학 석사 및 박사학위 취득하였습니다.

중화민국 유학은 당시 대한민국과 중화민국 정상회담 합의사항의 하나였던 사회과학 분야 학술교류협력에 따른 장학생 선발에 응모하여 선발됨으로써 이루어졌습니다. 법학석사학위 취득 당시에 중화민국에서 사회과학 분야는 전공에 관계없이 모두 법학석사 학위로 통일되어 있었기 때문이며 실제 법학전공과는 무관합니다. 미국으로 유학한 배경은 중화민국 유학과 동시에 미국 유학도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당초 계획을 순차적 실행에 옮긴 것입니다.

### 3. 중국과 관련된 강의를 들으신 적이 있었는지요? 그 강의에서 중국에 대한 인상은 어떠했는지요?

→ 대학원 석·박사 전 과정에서 수강하였습니다. 위에서 언급하였던 것처럼 대만에서 법학을 전공하였고, 이후 미국에서 경제학을 전공하였는데 전공이 전공인 만큼 이때 중국 관련 수업을 많이 들었다고 할 수 있지요. 한국 서강대학교에서의 전공이 경제학이었고, 미국에서 공부하였던 것도 중국의 경제였기 때문에 당연히 관심의 집중은 중국경제에 있었습니다. 중국경제의 발전 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컸습니다.

### 4. 연구를 해오시면서 스승으로는 어떤 분들이 계셨는지요? 그분들이 교수님의 연구에 미친 영향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 대만 유학 시 尹慶耀(지도교수), 任卓宣, 郭華倫, 馬昌宗 교수 등 중국대륙에서 건너온 학자 다수로부터 공산주의 이론, 중국공산당 역사; 중국 대외정책, 중국경제와 화교자본 등을 배웠고, 미국 유학 시 R. Campbell(지도교수), N. Spulber, A. Eckstein 교수 등으로부터 사회주의체제와 개혁론, 중국경제발전 등을 배움으로써 중국과 중국경제연구에 대한 기반이 형성되었습니다.

### 5. 학문의 길을 걸으시면서 교수님께 가장 영향을 미쳤던 것은 무엇입니까? 이러한 영향으로 어떤 결과가 있었다고 보십니까?

→중국의 개혁개방에 따른 중국여행의 자유화입니다. 그로 인해 자료와 타인의 연구에 의존하는 연구에서 탈피하여 중국경제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중국의 학자들과 학문적 교류를 통해 보다 현실성 있고 깊이 있는 연구가 가능해졌습니다. 연구실적에 포함된 대부분의 논문과 저서의 집필 중에 연구내용 발표와 토론을 위해 자비나 연구기관의 초청으로 중국 방문하였습니다. 방문목적은 주로 자료수집과 연구기관 방문 및 학자 면담 등입니다. 국내 기관의 중국방문 프로그램에 따른 것 중 중요한 것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프로젝트인 “중국 경제특구 전략의 평가와 한국기업의 대응”(1991년), KIST 연구프로젝트 “중국의 기술도입정책 연

구”(1993년), 대한민국 농림부 위탁 “한·중 농업협력프로젝트”(2000년), 경성대학교와 중국 랴오닝성 선양 소재 동북대학 간 학술회의 (매년 홀수 년도 중국 개최) 등입니다. 중국 방문 회수는 매년 평균 1~2회 정도이고 체류기간은 일주일인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나이와 건강 등의 이유로 중국 방문 횟수를 가급적 줄이고 있습니다.

**6. 연구초기 참가했던 학술회의와 연구회가 있으면 생각나는 대로 이야기 해주십시오.**

→대만 유학 시 매주 개최되는 중국대륙 관련 세미나와 미국 각 대학의 중국 관련 연구소 세미나를 수시로 참석하였습니다. 귀국 후 한국국제경제학회와 한국경제학회에 중국경제에 대한 연구 논문 발표하였고, 국내외 공산권 연구 학자들과 한국공산권연구협의회 결성(초대 회장 김준엽 고려대 교수) 및 국내외 중국 정치, 경제, 사회 전공 학자들과 중국의 개혁·개방에 대한 대규모 국제학술회의 개최, 한국북방경제학회, 한국비교경제학회를 창설하였습니다.

**7. 개최하신 학술대회의 일시를 기억하시나요? 혹시 기억나지 않더라도 대충의 날짜를 적어주셨으면 합니다. 한국북방경제학회와 한국비교경제학회의 창설멤버셨다고 이해해도 되는지요? 창설 날짜와 배경을 설명해주셨으면 합니다.**

→연구초기 1970년대 학술회의 날짜 기억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1980년대부터 1990년대 초까지 관련 자료가 있거나 기억나는 국제학술회의는 한국사회주의체제연구협회의 “China in the 1980: Reforms and Their Implications”(1985년 8월 8일-10일); “The Changing Socialist Systems and the Korean Peninsula in the Post-Cold War Era”(1991년 11월); “韓·中科學技術共同開發計劃” 國際共同SEMINAR(1993년 9월 20-21일), 중국인민외교학회 초청 재단법인 아시아·태평양 평화재단(당시 이사장 김대중 전 대통령)과 중국태평양학회 주최 “한·중 경제협력 방안”(1994년 11월 1일~10일) 정도입니다,

창설멤버로 참여한 한국동북방경제학회(현재 한국동북아경제학회)의 전신인 한국중소경제학회(창설일: 1988년 10월 15일)는 중국과 소련 등 사회주의권 경제의 체계적 연구를 위해 창립되었으며, 한국비교경제학회(창설일 1991년 4월 19일)는 중국의 경제개혁과 옛 사회주의권의 변화에 따른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비교 연구를 목적으로 창립되었습니다.

**8. 일반적으로 연구과제는 어떻게 선정하셨습니까?**

→본인의 관심에 따라 선정합니다. 주로 중국경제의 해외부문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연구실적 목록에 있습니다.

**9. 연구비용은 어떻게 해결하셨는지요? 그리고 연구를 하시면서 연구비와 관련된 변화가 있는지요?**

→초기에는 문교부 연구과제 공모에 응모, 아시아연구기금, 재직하는 대학 연구비 등으로 연구비용을 충당합니다. 점차 연구비의 규모가 커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문교부와 아시아연구기금 연구비는 모두 일시적인 것이고 재직 대학 연구비는 계속 받고 있습니다.. 문교부 연구비 지원 연구주제는 “탈마르크스주의의 공산권 경제학”(1986년 연구비는 200만 원 정도)이었습니다. 외부연구기관 위탁 연구과제는 국제문제조사연구소의 “中·蘇의 경제개혁 및 개방정책의 대북한 파급영향분석” (1987년 연구비 100만 원 정도)과 아시아연구기금 지원 연구주제(공동연구)는 “The Scheme of the Northeast Asian Economic Sphere and Potential for Regional Cooperation” (1996년 연구비 2,000만 원)입니다. 재직 대학 지원 연구 주제는 “중국의 반덤핑제도 운용과 한국의 대중국 수출에 미친 영향” 등으로 연구비는 2년 간격으로 과제당 500만 원 정도입니다.

**10. 강의를 하는 과정에서 교수님의 연구와 경험이 어떻게 투영된다고 보십니까? 강의 내용은 주로 어떤 것이었고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변화된 것이 있는지요?**

→연구내용의 상당 부분을 중국 관련 담당 교과과정의 강의에 활용합니다. 강의 내용은 중국의 무역통상정책, 중국 비즈니스문화와 시장연구이기 때문에 중국 현지 관찰을 통해 중국경제의 변화에 따라 매년 강의 내용을 업데이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11. 교수님의 강의를 들은 학생들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실 수 있습니까?**

→ 중국경제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수강 학생의 수가 매년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스스로 중국어 학습과 중국에 중국어 어학 연수생이 늘어나고, 중국으로부터 본교 유학생도 매 학기 2~3명이 되는 등 강의의 호응도가 높은 편입니다. 졸업 후 중국진출 기업에 취업하는 학생도 증가 추세입니다. 취업 또는 창업으로 중국에 진출한 제자들에 관해 직간접으로 소식을 들은 바 있는데 그 이름이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12. 한국의 중국학계에 대해 논평을 하신다면?**

→과거에는 어문학, 정치외교 분야에 연구가 집중되었고 유학도 대만, 미국 등에 집중되었으나 중국의 개혁개방과 중국경제의 발전, 특히 중국의 WTO가입을 전후하여 중국 대학에서 경제학 관련 학위를 취득하고 귀국하는 학자들이 많아지면서 중국경제 분야의 연구자들의 연령이 젊어졌습니다. 그리고 각 대학에 중국학과가 개설되고 국책연구소와 민간경제연구소에 중국경제 전담 연구부서가 생김으로서 수요에 따른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경제에 관한 한, 아직까지 세계적으로 내세울만한 중국 전담 연구기관이 전무하고 연구성과도 미국, 일본에 비해서 질적으로 우수하지 못하다고 판단됩니다.

**13. 대만과 미국, 두 국가에서 공부하신 교수님의 입장에서 볼 때, 앞으로 중국을 공부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유학을 간다면 대만, 미국 등의 국가와 중국 중 어느 쪽을 권하고 싶으신지요?**

→개별적 목적 지향성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개별적 면담이 없고서는 답할 수 없습니다. 다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학문 지향적이라면 대만 또는 중국을 거쳐 미국이나 일본에서 공부하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미국의 유명대학에서는 지역연구과정에 반드시 2년 정도의 연구대상지역의 언어를 포함한 현지학습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음을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공부하는 방법에 있어서, 중국에 관한 폭넓고 다양한 지식을 습득하는 하되, 중국의 역사, 문화에 대한 심층적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고 연구방법의 개발에도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중국경제의 연구에는 단순한 중국 발표 통계의 나열보다 그것이 갖는 정책적 의미 분석을 해낼 수 있는 통계학과 계량경제학적 소양을 갖추기 바랍니다.

**14. 연구과정에서 서구사상 (Hegel, Marx, Weber, Parsons, etc.) 및 영미 중국연구의 영향을 어느 정도 받았다고 보시는지요?**

→중국사상사를 공부하는 과정에서 Feuerbach 등 Hegel 좌파이론과 Marx, Lenin, Ruxenburg 등 공산당 이론을 접하였으나 주로 비판적 시각에서 공부하였으므로 개인적으로 연구에 큰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15. (12번 답변에 이어) 그렇다면, 교수님께서 연구하실 때 연구시각 혹은 연구에 임하는 자세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미국의 한 중국학 권위자는 한국의 중국학 수준에 대해 다양한**

관점에서의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한 적이 있는데요. 교수님께서 견지하시려고 하는 연구태도가 있으신지요?

→중국경제연구는 중국 사회문화적 영향이 크다는 점에서 역사와 문화적 배경에 대한 탐구와 아울러 연구에 많이 활용되는 중국 통계자료의 오류 또는 문제점을 점검하거나 정책적 함의를 추출하는데 계량분석 방법을 두루 견지하는 편입니다.

**16. 중국학술계나 기타 사람들과 교류, 혹은 함께 연구를 진행한 경험은 있으신지요?**

→중국사회과학원, 국무원발전연구중심 등 연구기관의 학자들과 각 대학의 경제학자들과 개인적 교류는 있으나 함께 연구한 경험은 없습니다.

연구기관을 통한 공적 관계를 통해 사적으로 친밀해진 경우가 많았으며 지금은 은퇴하거나 사망한 분들이 적지 않아 관계유지는 되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경제발전사상을 공부하는데 있어서 중국사회과학원장을 지낸 劉國光 교수, 북경대 董輔礪 교수, 厲以寧 교수 등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17. 중국의 발전 과정과 미래에 대한 평가를 하신다면?**

→개혁·개방 이전의 계획경제체제의 급진적 조방적 성장(extensive growth)에서 개혁·개방 후 시장경제체제에 입각한 집약적 성장(intensive growth)으로 전환된 후 경제사회 발전의 속도와 질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이러한 추세가 지속된다면 2050년에 세계 최대의 경제대국으로 부상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역경사정책에 의한 불균형 성장과 산업구조 조정이 미흡하여 지역 간, 계층 간 소득격차가 심화된 데 대한 불만이 증폭되고 국민들의 민주화에 대한 정치적 욕구충족도 미흡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소득증가와 사회다원화에 따른 정치체제개혁이 상당 기간 지연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점은 중국의 안정적 발전을 지속하는데 한계가 될 수 있습니다.

**18. 연구 과정 및 연구 경험(연구과제, 연구자료, 연구방법 등)에 대해 이야기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중국에 관한 내용이면 특별히 분야를 가르치지 않고 폭넓게 독서하는 편입니다. 연구와 연구과제는 주로 관심 분야인 중국경제정책, 특히 대외경제정책 부문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연구자료는 주로 중국 발간 자료와 중국 정부와 주요 학술기관의 인터넷 자료를 많이 활용합니다. 연구방법은 경제학 이론과 통계 및 계량분석을 주로 합니다.

최근에 읽은 도서는, Jonathan D. Spence의 The Search for Modern China(New York: W.W. Norton Co. 1990)와 일본 동경대학의 카쥬지 나가가네 교수의 '중국경제발전론'(東京: 有斐閣, 1999), Guy Sorman의 L'annee du Coq: Chinois et Rebelles(국내에 '중국이라는 거짓말'로 2006년에 번역 출간됨)는 비교적 기억에 남는 책입니다. 특히 Sorman의 책은 높은 경제성장으로 세계경제대국으로 부상하고 외적으로 다분히 미화되고 있는 중국의 내부를 통렬한 비판적 시각으로 관찰하고 있어 전공분야와 관계없이 중국을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일독을 권하고 싶습니다.

지금 연구주제는 중국의 환율문제와 외환보유액에 관련된 것이며, 앞으로 '중국인의 경제 인식'에 관한 문제나 '中國國富論'에 관한 연구를 구상해보고 있습니다.

**19. 교수님의 연구에 가족이 준 영향이 있는지요?**

→고등학교 졸업 이후 모든 학업은 가족의 도움 없이 스스로 해결했습니다만, 가족의 이해와 도움이 없었다면 해외 유학 등 연구는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중화민국 유학 중에는 누나와 동

생들의 부모님 부양으로 연구에 전념할 수 있었고, 중화민국 유학이후에 곧장 미국으로 갈 계획이 가정 형편으로 취업이 불가피하게 되어 결혼과 자녀를 둔 상태에서 뒤늦게 미국유학이 이루어지기는 했지만 그것도 부모 형제들의 이해와 아내의 권장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유학 중 공부와 일로 힘들 때마다 아내의 격려는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유학 경비는 유학국과 대학의 장학금 및 연구지원금으로 충당되었습니다.

17. 한국에서 중국 연구가 어떻게 되어져야 한다고 보십니까?

→하드웨어 측면에서 대학이나 정부기관에 세계적으로 내세울만한 중국 전담 연구기관이 세워져야 하고 그에 대한 재정적 지원시스템이 갖추어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소프트웨어 차원에서 중국을 연구하는 국내외 학자들 간의 유기적 네트워킹과 그것을 활용한 중국과 선진국 학자들과의 폭넓은 교류 확대와 정기적 학술대회 개최 및 각 분야별 권위 있는 학술지 발간을 위한 노력 등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20. 한국에서 학문이외에 정치적인 참여를 하신 적이 있는지요? 있다면 어떤 역할이었나요?

→없습니다.

21. 중국의 정치가나 정치학자와 교류를 하시고 계신지요?

→없습니다.

22. 소속하신 연구단체는 무엇이며 그 연구단체에서 어떤 역할을 맡았거나 맡고 계신지요?

→ 한국동북아경제학회 회장, 학회지 편집위원장, 한국비교경제학회 회장을 역임하였습니다. 학회지에는 현재 고문으로, 한국비교경제학회에는 현재 명예회장으로 있습니다.

좀더 자세히 얘기하면, 韓國中蘇經濟學會 감사(1988.10-1992. 2); 韓國社會主義體制研究協議會 상임이사(1990. 9-1992. 6); 韓國比較經濟學會 이사/감사(1991. 4 -1997. 2); 韓國北方經濟學會(韓國中蘇經濟學會 명칭 변경) 학술이사 겸 北方經濟研究 편집위원장(1992. 4 -1995. 6); 韓國世界地域研究協議會 연구이사(1993.11 -1994.11)로 활동했습니다. 그리고 韓國東北亞經濟研究會 총무이사(1994. 6 -1995. 6)를 맡고나서 한국동북아경제연구회와 한국북방경제학회를 통합하여 韓國東北亞經濟學會를 창립하는데 주도적 역할(통합 학회 창립 취지문, 통합학회 회칙 등 초안)을 했습니다. 그 후에 韓國國際經濟學會 이사(1995. 3 -1996. 2); 韓國東北亞經濟學會 차기회장 겸 東北亞經濟研究 편집위원장(1995. 6 -1997. 3); 韓國比較經濟學會 부회장 겸 比較經濟研究 편집위원장(1997. 3 -1999. 2); 韓國東北亞經濟學會 회장(1997. 3 -1998. 2); 韓國比較經濟學會 회장(1999. 3 -2001. 2)을 역임했습니다. 가장 최근의 활동으로는 한국동북아경제학회 고문 겸 東北亞經濟研究 편집위원장(2003. 3 - 2007. 2)으로 학회지를 한국학술진흥재단 등재후보지에 이어 등재지로 승격시킨 후에 2선으로 물러났습니다.

23. 연구 생애에서 교수님의 가장 큰 성과는 무엇이라고 보시는지요? 그리고 아쉬움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요?

→국내 중국경제 연구에 초석을 놓은 점은 하나의 작은 성과라고 생각되지만, 후배들의 연구를 북돋을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해주시 못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 研究實績目錄

< I. 學位論文 (박사, 석사), II. 論文 (최근 실적순), III. 著書 (최근 실적순), IV. 其他著作 (최근 실적순)>

### I. 學位論文

#### 1. 經濟學博士:

Yong-Suk Oh, "Modification of the Fel'dman Growth Model and Its Theoretical and Policy Reflection in the Chinese Economy, 1953-1980," Department of Economics, Indiana University, Bloomington, Indiana, U.S.A. January 1985.

논문 개요 : 1920년대 소련의 펠드만 경제성장모형을 수리적 제어이론(Control Theory)을 응용하여 수정함으로써 모형의 유효성을 검증하는 한편 중국문헌에서 유사한 모형을 발굴하여 비교함과 아울러 그들 모형이 1953년부터 1980년까지 중국의 경제개발정책에 적용된 사실을 논증함.

#### 2. 法學碩士:

吳勇錫, "中共對第三世界政策之研究", 中華民國 政治作戰學校 政治研究所, 臺北 復興岡, 1977年 8月

논문 개요 : 毛澤東의 "農村包圍城市" 사상에 따른 중국의 세계전략 가운데서 농촌에 해당하는 제3세계에 대한 정책을 정치경제학적 시각에서 고찰하고 분석함.

### II. 論文 (최근 실적순)

#### 2006년

83. 오용석, "중국의 반덤핑제도 운용과 한국의 대중국 수출에 미친 영향," 한국비교경제학회, 『比較經濟研究』 제13권 제2호, 87-129.

82. Yong-Suk Oh, "Progress, Problems and Betterment in Sino-Korean Trade Relationship," *Journal of Northeastern University China*. Special Issue of Social Science, Vol.8, S.1 Northeastern University. Shenyang China, 4-7

#### 2004년

81. 오용석, "중국경제의 발전과 장보고 모델의 현대적 응용," 한국동북아경제학회, 『東北亞經濟

研究』 제16권 제3호, 73-111

## 2003년

80. 오용석, “한국의 ‘동북아 경제중심’ 정책의 과제와 전략,” 한국동북아경제학회, 『東北亞經濟研究』 제15권 제3호, 35-63
79. 오용석, “중국의 구조개혁 평가와 중장기 발전전망,” 한국비교경제학회, 『比較經濟研究』 제10권 제1호, 163-202.

논문개요 : Since 1986 China's reform of foreign trade system has been driven in accordance with competition principle in free markets enough to meet the condition of her entry to the WTO. As a result, her foreign trade system is gradually transforming to a free trade system accepting the WTO rules. Recently, China's structure of trade commodities begins heightening by introducing IT-related products. Owing to her lasting economic growth and structural reforms, China has now not a few worldwide top-ranked industries. However, industrial structure is not yet free from influence of the old system. Despite many structural problems, China's economic collapse will not occur. The structural problems seem to be gradually solved through her continuous economic reforms. A strong resistance to external shocks and growth potentiality of China's economy being considered, the prospects that China will possibly become the second economy in the world are acceptable enough.

## 2002년

78. 오용석, “韓日中 FTA의 當爲性과 東北亞 變數,” 東北亞經濟研究 제14권 제3호, 2002년 12월  
논문개요 : 동북아지역의 경제통합이 세계적인 추세에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은 칠레와 FTA를 체결하였고, 일본은 싱가포르와 자유무역지대 구축에 관심을 쏟고 있다. 한편, 중국은 ASEAN과 FTA를 체결한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협상에 들어가는 등 동북아 지역의 각국의 FTA 체결노력은 활발하지만 정작, 동북아 지역에 있는 한일중 당사자들 간의 FTA는 등한시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 논문은 이에 관한 요인을 분석, 논의하고 있음.
77. 오용석, “대중국 농산물 수출 중장기 전략 방안,” 2002년도 농림부 정책연구과제, 농림부, 2002년 12월
76. 吳勇錫, “한·중 농산물의 경쟁상황에 따른 정책과제와 협상전략,” 건국대학교 중국문제연구소 『中國研究』 제21집, 2002년 12월, 179-204.
75. 오용석, “중국 무역체제개혁의 전개와 방향: WTO 가입 전후의 체제비교론적 관점에서.” 한국비교경제학회, 『比較經濟研究』 제9권 제2호, 235-285.
74. 오용석, “남북한 경제협력과 동북아 경제협력의 연계 전략,” 한국토지공사, 『統一과 國土』 제9호, 2002년 봄/여름호, 18-28.

## 2001년

73. Oh, Yong-Suk, "Causes, Aftermath and Lessons of the Korean Financial Crisis and Need of Intra-Regional Financial Safety Net in East Asia," *China Report*, Vol. 37, No. 2 (April-June 2001), Sage Publications, New Delhi/Thousand Oaks/London, pp. 213-236.
72. 吳勇錫, "한국 대학에서의 國際通商學 위치 정립," 한국국제통상학회, 『國際通商研究』 제6권 제2호, 2001년 12월, 157-183.  
논문내용 : '무역'과 '통상'이라는 용어가 혼용되고 무역학이나 국제통상학이 뚜렷한 학문체계를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최근 국제통상이슈의 부각으로 한국 대학들에 국제통상학과가 개설됨에 따라 국제통상학과 무역학을 놓고 적지 않은 혼란이 일어나고 있다. 그러나 국제통상과 국제무역의 개념을 명확히 하면 이런 혼란은 해소될 수 있음.
71. 吳勇錫, "중국의 WTO 가입이후 대중국 농산물교역환경의 변화와 대응," 건국대학교 중국문제연구소 『中國研究』 제20집, 2001년 12월, 105-132.
70. 吳勇錫, "중국의 WTO 가입이후 대외경제정책변화 효과와 대외과급영향," 東北亞經濟研究, 제13권 제1호, 2001년 11월, 91-128.  
논문개요 : 중국의 WTO 가입 이후, 한국의 상대적인 경쟁력 약화에 대한 한국의 대비책에 관하여 논함.  
목차 : I. 서론  
II. 중국의 WTO 가입이후 대외경제정책의 변화  
III. 중국의 WTO 가입이후 정책변화의 국내경제효과 분석  
IV. 중국의 WTO 가입이후 정책변화의 대외과급영향  
V. 한국 기업 및 정부의 대응방향  
VI. 결론
69. 吳勇錫, "통상정책의 게임이론적 접근," 경성대학교 산업개발연구소 『商經研究』 제17집 제1호, 2001년 2월, 15-22.  
논문개요 : 기존에 정립되어 있는 게임이론과 통상에 관한 이론적 논점들을 활용하여 국제통상문제에 관한 정치 경제적 함의를 포괄적으로 정리하였음.  
목차: I. 서론  
II. 소국의 보호무역정책과 정치활동  
III. 대국의 보호무역정책과 통상마찰  
IV. 국제통상협상의 정치-경제적 분석  
V. 국제통상문제의 해결과 통상제도  
VI. 결론

## 2000년

68. 吳勇錫, "중국 대외정책의 원칙 및 목표의 지속과 변용," 건국대학교 중국문제연구소 『中國研究』 제19집, 2000년 12월, 31-55.
67. Oh, Yong-Suk, "Causes of the Financial Crisis and the Need of Monetary Cooperation in East Asia," *Global Economic Review*, Vol. 29, No. 2, 2000, pp. 3-23.  
논문개요 : The Main causes of the East Asian financial crisis in 1997-98 can be divided into domestic and foreign ones. The domestic cause stems from structural and liquidity problems, with growing share of non-performing

loans in the financial sector, posing as the most visible manifestation of such problems. On the other side, there is the foreign cause, the sudden fall of the yen against the dollar under the region's unstable foreign exchange system and also its over-dependency on the dollar. Unfortunately, these causes have not yet disappeared. In order to prevent another financial economic crisis from recurring and to secure the regional currency stability in the long run, an external safety device is indispensable. The purpose of the East Asian monetary cooperation device is not only to absorb the external shocks caused by abrupt changes in the dollar/yen rate and sudden flow of capital, but also to settle international liquidity problems among the regional countries. If a device for the East Asian monetary cooperation is established, transparency in both financial and physical markets will be augmented and in the process, so will be the stability of financial and physical transactions.

- 목차 : 1.INTRODUCTION  
2.EAST ASIAN ECONOMIES IN THE FINANCIAL CRISIS  
3.CAUSES OF THE FINANCIAL CRISIS IN EAST ASIA  
    - Domestic Factors  
    - Foreign Factors  
4.ECONOMIC RECOVERY AND FINANCIAL RESTRUCTURING  
    - Economic Recovery and Remaining Weakness  
    - Financial Restructuring and Problems  
5.DEVICE FOR THE EAST ASIAN MONETARY COOPERATION  
    - Need of External Safety Device  
    - Device for East Asian Monetary Cooperation  
    - Expected Effects  
6.CONCLUSION

## 1999년

66. 吳勇錫, “中國의 東아시아의 經濟發展 모델,” 한국비교경제학회, 『比較經濟研究』 제7권 제1호, 1999년 11월 박영사, 92-132쪽.  
논문개요 : 중국경제성장의 원동력에 관하여 알아보고 유가적 전통가치체계에 바탕을 둔 동아시아의 발전모델에 관하여 논함.  
목차: I. 序論  
II. 東아시아 經濟發展 모델과 儒家的 資本主義  
III. 中國의 傳統的 價値와 資本主義 市場經濟 傳統  
IV. 中國 資本主義 市場經濟의 失敗要因  
V. 中國 社會主義 市場經濟體制와 東아시아의 價値  
VI. 結論
65. Oh, Yong-Suk, "Lessons from the Korean Financial Crisis and the East Asian Financial Cooperation," Paper for 1999 Annual meeting: The International Symposium of the Japan Association for Asian Political and Economic Studies, held on October 30th and

31st, 1999 in Tokyo.

64. 오용석, “남북한 경제교류와 환동해 경제협력,” 한국동북아경제학회, 『東北亞經濟研究』 제11권 제1호, 1999년 8월, 157-175쪽.

논문개요 : 경제교류와 협력이 공동해역 국가들 간에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져 온 사실의 중요성을 말하고 동북아 경제협력도 환동해와 환황해를 중심으로 활발해질 것이라는 관점에서 남북한 경제교류와 환동해 경제협력을 논의함.

목차 : I. 머리말  
II. 최근 남북한 경제교류의 진전과 의의  
III. 환동해 경제협력의 잠재력과 제약  
IV. 남북한의 환동해 연계 경제협력구도  
V. 맺음말

63. 오용석, “국제무역의 구조적 변화와 신통상정책원리,” 한국국제통상학회, 『國際通商研究』 제4권 제1호, 1999년 6월, 3-30쪽.

논문개요 : 신통상정책원리의 대두는 세계무역규모의 변화 뿐만 아니라 구조적인 변화에 의해 기인한다. 즉, 신통상정책원리는 전통적 무역이론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세계무역의 구조적 변화와 그러한 변화의 질적 상관관계에 있는 국제 분업구조의 변화와 지역협력구도에 따른 역내 교역구조의 동태적 변화에서 비롯된 것이다.

목차 : I. 머리말  
II. 세계무역의 구조적 변화양상  
III. 국제분업구조의 변화와 신통상이론  
IV. 신보호무역주의 통상정책원리  
V. 신자유무역주의 통상정책원리  
VI. 신지역주의 통상정책원리  
VII. 맺음말

62. 오용석, “소외없는 세계화, 연대의 세계화를 위한 조건과 실천,”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사목』, 242호, 1999년 3월, 16-27쪽.

61. 吳勇錫, “중국의 WTO 가입이 동북아 교역에 미칠 영향과 한국의 대응,” 한국동북아경제학회 『東北亞經濟研究』 제10권 제2호, 1999년 2월, 1-31쪽.

## 1998년

60. Oh, Yong-Suk, "Designing Korea's Strategic Areas for the South-North Korean Economic Integration and the Northeast Asian Economic Sphere," Won-Bae Kim ed. *Restructuring the Korean Peninsula for the Twenty-First Century*, KRIHS-EWC. 1998, pp.85-126.

59. 吳勇錫, “中國 水害의 구조적 原因과 경제적 波長,” 건국대학교 중국문제연구소 『中國研究』 제17집, 1998년 12월, 165-178쪽.

58. 吳勇錫, “東아시아 經濟發展 모델 : 中國의 경우,” 한국비교경제학회 정기학술발표대회 논문집, 1998년 11월,

57. 吳勇錫, “世界經濟의 新地域主義와 多者主義,” 서울대학교 경제연구소, 『經濟論集』 제37권 제 2·3호, 1998년 9월, 409-422쪽.

56. Oh, Yong-Suk, “Strategic Approach to the Embodiment of Regional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Global Economic Review*, Vol. 27, No. 1 (Spring 1998), pp. 27-47.

논문개요 : The traditional way of establishing an economic community is hard to apply to the Northeast Asian region. It is why a model peculiar to Northeast Asia is called for to build up an economic cooperation body. In this context I have presented a model as a device for approaching the establishment of the Northeast Asian economic cooperation system, which is called the "Wave-type Model". The object of this paper is to deal with a strategic approach to the realization of the regional cooperation body in Northeast Asia by applying the Wave-type Model and by suggesting the inter-megalopolitan business belt in a hang glider shape on the prolongation of the Wave-type Model. The megalopolitan business belt is a regional cooperative system with economically important cities in Northeast Asia as the pivots. This is the way-out of breaking down the barriers hindering central governments in making a multilateral cooperation system. The inter-megalopolitan business belt is expected to play the role of a blast of wind to raise a "wave" for the Northeast Asian economic cooperation system.

55. 吳勇錫, “中國の市場經濟の傳統と社會主義市場經濟に関する小考,” 翰林大學校 翰林科學院, 『翰林日本學研究』 第3集, 1998년 11월, 161-168.

54. 吳勇錫, “中國의 WTO體制 移行課題와 무역구조변화,” 대외경제정책연구원, 『亞洲經濟』 1998년 1/2월호, 3-23쪽.

논문개요 :

## 1997년

53. 吳勇錫, “中國 科學 및 産業技術의 特性과 政策 변화에 따른 韓·中 技術協力の 方向” 건국대학교 중국문제연구소, 『中國研究』 제16집, 1997년 12월, 119-150쪽.

52. 吳勇錫, “韓, 中, 日技術分工體系化戰略與韓國和中國的作用”, 中國社會科學院 韓國研究中心 『當代韓國』 第3期 總第16期, 1997년 9월, 48-51.

51. 吳勇錫, “韓·中 貿易關係의 評價와 發展方向”, 대한상공회의소, 『한중수교 5주년기념세미나 논문집』, 1997년 8월, 1-36쪽.

50. 吳勇錫, “中國 揚子江流域 經濟와 開發構圖” 한국동북아경제학회, 『東北亞經濟研究』 제9권 제1호, 1997년 8월, 27-65쪽.

49. 吳勇錫, “通商學의 새 學問的 體系化”, 경성대학교 『논문집』 제18집 제1권, 1997년 3월, 545-570쪽.

논문개요 : This paper focuses on four arguments for the systemization of "commerceology" so as to meet the demand for a new science in compliance with the growing importance of world commerce issues and with the expanded study realm of this field. The first argument is the conceptual establishment of commerceology. The second one is to present the logical grounds of bring into existence of this science. The third part consists of the major theoretical and policy frameworks. And the last argument is the methodology of this new science.

- 목차 : I. 序 論  
II. 「通商學」의 概念定義  
III. 「通商學」의 成立論據  
IV. 「通商學」의 理論體系  
V. 「通商學」의 方法論  
VI. 結 論

48. 吳勇錫, “동북아 경제협력의 여건과 구상”, 李弘杓 編, 『동아시아 협력의 정치경제』 세종연구소, 1997년 2월, 51-105쪽.

## 1996년

47. 吳勇錫, “鄧小平 以後의 中國經濟와 韓·中 經濟關係 展望”, 『鄧小平 時代 以後의 中國』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내 중국전문가 Network 워크샵 논문, 1996년 11월.
46. 吳勇錫, “中國의 對北韓 政策基調와 經濟協力”, 李昌在 編, 『韓半島 周邊4國의 對北韓政策』 對外經濟政策研究院 정책연구 96-10, 1996년 10월, 9-50쪽.
45. 吳勇錫, “동북아시아 대도시 협력권과 비즈니스벨트 형성”, 부산일보사, 『21세기 東北아시아의 새로운 협력과 발전』 (국제학술대회 논문집), 1996년 9월, 105-124쪽.
44. 吳勇錫, “동북아경제협력의 ‘물결’ 모형”, 한국동북아경제학회, 『北方經濟研究』 제7호, 1996년 3월, 27-47쪽.
43. 吳勇錫, “中國의 對北韓 경제협력: 그 전략과 전망”, 한국동북아경제학회, 『北方經濟研究』 제7호, 1996년 3월, 64-95쪽.

## 1995년

42. 吳勇錫, “鄧小平 이후의 中國經濟와 韓·中 經濟關係 展望”, 경성대학교 산업개발연구소 商經研究 제11집, 1995년 11월, 137-154쪽.
41. 吳勇錫, “環黃海經濟圈について”, 關西經濟研究センター, 『局地經濟圈』 第7號, 1995년 9월, 2-15.
40. 吳勇錫, “세계 經濟特區의 類型 및 戰略과 南北韓 經濟統合에의 응용”, 韓國比較經濟學會 刊, 比較經濟研究, 통권 제3호, 1995년 8월, 226-270쪽.
- 논문개요 : 북한의 경제개발지역을 경제적 상호연계성이 큰 남한의 일정한 지역과 연결해 나

가는 경제통합방안을 제시함.

목차 : I. 序 論

II. 經濟特區의 史的 構造

III. 經濟特區의 機能的 類型과 立地條件

IV. 經濟特區戰略의 目標

V. 異質體制 統合模型으로서의 中國 經濟特區戰略

VI. 經濟特區戰略의 南北韓 經濟統合에의 應用

VII. 結 論

39. 吳勇錫, “동북아경제협력의 ‘물결’ 모형”, 한국북방경제학회·한국동북아경제연구회 통합 한국동북아경제학회 창립기념 학술심포지엄 논문집 동북아경제협력 모형의 총점검, 1995년 6월 15일.
38. 吳勇錫, “鄧小平이후 한·중 경제관계의 전망”, 인천대학교 대학원 학술세미나 논문집, 1995년 5월 30일.
37. 吳勇錫, “中國의 對北韓 경제협력”, 한국북방경제학회 제13회 정기학술대회 논문집 北韓 經濟 開放과 主要國의 對北接近戰略, 1995년 3월 25일.
36. 오용석, “경제특구를 통한 남북한 경제통합 접근방안”, 단국대학교 부설 협동문화경제연구소 편, 통일경제와 북한농업, 한울아카데미, 1995년 3월, 186-203쪽.
35. 吳勇錫, “韓·中 貿易關係의 評價와 發展方向”, 아태평화재단, 중국태평양학회 국제학술회의 자료집 한·중 경제협력 방안, 1995년 1월, 40-65쪽.

## 1994년

34. 오용석, “통일한국의 공간재구성”, 한백연구재단 포럼21, 제10집, 1994년 여름, 139-149쪽.
33. 吳勇錫, “環東海 經濟圈의 物流體系化”, 仁谷 金德中 教授 華甲 記念 세미나, 서강대학교 경제연구소, 1994년 6월 9일, 12-20쪽.
32. 吳勇錫, “각국의 經濟改革이 「新經濟」에 주는 시사”, 韓國比較經濟學會 편, 比較經濟研究, 통권 제2호, 1994년 6월, 215-220쪽.
31. 吳勇錫, “東北亞 國際業務據點 形成을 위한 釜山 經濟特區 設置 方向”, 부산발전시스템연구소 · 국제경영전략연구원 주최 釜山圈의 投資自由地域 設置 方案 정책세미나, 1994년 4월 28일, 15-28쪽.
30. 오용석, “동북아의 신국제질서와 한국의 선택”, 나라정책연구회 편 동북아 경제권과 한반도발전 전략, 서울: 도서출판 길벗, 1994년 3월, 13-95쪽.
29. 吳勇錫, “東北亞 經濟協力 構圖와 韓國-臺灣 協力の 方向”, 東亞研究 제27호, 西江大學校 東亞研究所, 1994년 2월, 95-117쪽.

논문개요 : 과거 이데올로기적 대립과 모순구조가 해결되고 경제적 실리주의의 교류가 극대되면서 동북아지역에도 다자간 협력구도를 그려내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에 직면함에 따라 한국과 대만의 경제협력에 관하여 논함.

- 목차 : I. 序論  
II. 東北亞 經濟協力圈의 構圖  
III. 東北亞 經濟協力的 可能性과 接近戰略  
IV. 東北亞의 多角構圖에서의 韓國-臺灣의 協力方向  
V. 結論

## 1993년

28. 吳勇錫, “東北亞地域 物流體系化와 濟州島의 國際物流基地化”, 제주상공회의소·제주국제협회의회  
편, 개방화시대의 제주경제, 서울: 도서출판 한울, 1993년 12월, 148-167쪽.

논문개요 :

- 목차 : I. 序論  
II. 동북아지역 물류체계화의 目標와 濟州도의 位置  
III. 동북아지역 물류체계화의 方向과 濟州도의 役割  
가) 一括運送體系化  
나) 海一空複合一貫運送體系化  
다) 連繫荷役體系化  
라) 物流基地의 체계화  
IV. 濟州도의 國際物流基地化의 기본 틀  
가) 국제 交通기능의 강화  
나) 텔리포트의 건설  
V. 期待效果  
가) 國內의 運送能力提高 效果  
나) 地域經濟 發展效果  
VI. 結論

27. 吳勇錫, “先進圈市場에서 韓國과 中國 間的 輸出競爭關係 分析”, 商經研究 第9집, 慶星大學  
校 産業開發研究所, 1993년 12월, 93-94쪽.

26. 吳勇錫, “中國의 科學技術政策과 韓·中技術協力的 方向”, 國際共同SEMINAR 韓·中科學技術  
共同開發計劃, 韓國科學技術研究院 國際科學技術協力센터, 1993년 9월 20일, 71-114쪽.

25. 오용석, “동북아 경제권의 형성과 남북한 경제관계의 전망”, 서남재단·경제정의연구소, 동북  
아경제권과 한민족의 역할, 1993년 6월 22일, 130-167쪽.

24. 吳勇錫, “경쟁상황하에서의 韓中經濟協力: 그 課題와 展望”, 中國研究 창간호, 大陸研究所,  
1993년 3월, 124-148쪽.

## 1992년

23. 오용석, “동북아 신국제질서와 국제경제”, 김철범 편, 21세기 신국제질서와 한반도, 평민사,

1992년 12월, 147-190쪽.

22. 吳勇錫, “21세기 제주도의 經濟的 位相”, 濟州道觀光協會 주최 韓日 國際세미나 21世紀 濟州 島の 役割 1992년 12월 9일, 9-16쪽.

21. Yong-Suk Oh, “Chinese and Soviet Reforms and Korea's Northward Policy: An Economic Perspective”, Chongwook Chung (ed.), *The Changing Socialist Systems and the Korean Peninsula in the Post-Cold War Era*, Seoul Press, 1992, pp.163-194.

20. 吳勇錫, “環黃海經濟圈의 形成可能性과 釜山의 役割”, 釜山商工會議所, 福岡商工會議所, 釜山日 報社, 日本經濟新聞社 주최 제3회 釜山・福岡세미나 環黃海經濟圈의 展望과 期待 主題 發表論文, 1992년 3월 20일.

## 1991년

19. 吳勇錫, “東北亞地域 經濟協力の 潛在力 및 制約”, 韓國社會主義體制研究協議會, 共產圈研究 論叢 第3輯, 1991년, 57-77쪽.

논문개요 :

목차 : I. 序 論

II. 東北亞經濟協力の 潛在力

1. 面積 및 人口 規模

2. 資源開發協力の 潛在力

3. 經濟發展 程道와 相互補完성

4. 高度成長에 의한 潛在力

5. 東北亞 經濟協力 潛在力の 綜合評價

III. 東北亞 經濟協力の 制約

1. 政治環境의 制約點

2. 經濟環境의 制約點

IV. 結 論

18. 오용석, “국제소득불균형 문제와 교회의 입장”, 韓國司牧研究所, 사목연구총서 4, 자본주의사 회와 가톨릭교회, 1991년 12월 183-237쪽.

## 1990년

17. 吳勇錫·朴光作, “東西獨의 經濟社會統合과 示唆點”, 吳勇錫 編, 韓國과 社會主義圈의 關係 發展 및 南北韓關係 變化의 展望, 對外經濟政策研究院, 1990년 6월, 97-155쪽.

## 1989년

16. 吳勇錫, “가톨릭시즘과 經濟開發”, 韓國가톨릭社會科學研究會, 가톨릭社會科學研究 第6輯, 1989년 12월, 64-79쪽.

15. 吳勇錫, “北方政策과 釜山經濟進路”, 釜山商議創立100周年記念세미나 地方化.國際化時代의 釜山經濟 主題發表論文, 1989년 6월 29일, 27-46쪽.

## 1988년

14. 吳勇錫, “脫마르크스主義의 共產圈 經濟學”, 韓國經濟學會, 經濟學研究 第36輯 第1號, 1988년 12월, 83-106쪽.
13. 吳勇錫, “日本經濟의 國際的 位相과 韓國經濟: 韓國의 觀點”, 慶星大學校 日本問題研究所 日本研究論叢 第2輯, 1988년 10월, 65-115쪽.
12. 吳勇錫, “中蘇의 經濟改革 및 開放政策의 對北韓 波及影響 分析”, 國際問題調查研究所, 政策研究 第90號, 1988년 3월, 17-70쪽.

## 1987년

11. 吳勇錫, “소비에트經濟 形成의 歷史的 背景에 관한 論考”, 國際問題研究所, 國際問題 第18卷 12號, 1987년 12월, 112-128쪽.

## 1986년

10. 吳勇錫, “均衡의 安定條件에 관한 考察: 새뮤얼슨의 ‘符合原理’ 를 중심으로”, 釜山產業大學校 產業開發研究所, 商經研究 第2輯, 1986년 10월, 153-163쪽.
9. 吳勇錫, “工業企業管理의 改革”, 李相禹 編, 中共의 새 進路, 法文社, 1986년 8월, 182-210쪽.
8. Yong-Suk Oh, “The Chinese Reform in Industrial Management”, Sang-Woo Rhee (ed.) *China's Reform Politics*, The Korean Association for Communist Studies(Study Series No.5), Sogang University Press, Seoul, 1986, pp.153-176.

## 1985년

7. 吳勇錫, “Optimal Growth Path in Centrally Planned Economies with Overtaking Objective,” 韓國國際經濟學會, 第16次 學術發表大會 論文集, 1985년 12월, 265-295쪽.
6. 吳勇錫, “中共經濟開發戰略의 轉換과 北韓經濟政策에 미치는 影響”, 釜山產業大學校 統一問題研究所, 統一論叢 第1輯, 1985년 12월, 41-79쪽.
- 논문개요 :
- 목차 : I. 序論
- II. 中共經濟開發의 目標
- III. 中共의 經濟開發模型
- A. 「휠드만-딩-리우」模型
- B. 「휠드만-딩-리우」模型의 修正

- IV. 中共開發模型의 運用과 戰略變化 要因
- V. 中共開發戰略 變化의 對北韓 影響
- VI. 結論

#### 1984년

- 5. Yong-Suk Oh, “An Assessment of China's Economic Development 1949-81, According to Recent Chinese Official Data”, *Working Paper*, Department of Economics, Indiana University, 1984. 34p.

#### 1983년

- 4. Yong-Suk Oh, “A Mathematical Approach to Marxian General Equilibrium”, *Discussion Paper*, Department of Economics, Indiana University, June 1983, 35p.
- 3. Yong-Suk Oh, “Chinese Approach to Economic Development: A Comparison with the Soviet Experience”, *CPE Workshop Paper*, Department of Economics & Department of International Business, Indiana University, March 1983, 30p.

#### 1981년

- 2. 吳勇錫, “開放型 小規模 經濟의 海外誘發 인플레이션을 위한 IS-LM모델”, 釜山産業大學, 論文集 第2輯, 1981년 3월, 149-163쪽.

#### 1979년

- 1. 吳勇錫, “對內外經濟均衡과 Policy-Mix理論의 數理的 檢證”, 釜山産業大學, 論文集 第1輯, 1979년 12월, 121-140쪽.

논문개요 : 수학적 분석기법을 통해 혼합정책, 즉, 자유환경 하에서의 고정 환율과 신케인스주의 시스템 하에서의 대내외 자본의 균형의 목적에 관하여 논함.

목차 : I. 序論

II. 金融政策變數가 利子率일 때의 對內外均衡과 Policy-Mix

III. 金融政策變數가 貨幣供給量일 때의 對內外均衡과 Policy-Mix

IV. 對內外經濟均衡과 Policy-Mix의 2國모델

1. 金融政策變數가 利子率일 때

2. 金融政策變數가 貨幣供給量일 때

V. 要約과 結論

### Ⅲ. 著 書 (최근 실적 순)

#### 2006년

23. 공저(38), 『글로벌 시장을 리드하라』 서울: 굿인포메이션, 2006. 11

책소개 : 각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38인의 필자들은 앞으로의 10년이 우리 무역에서 매우 중요한 시기라는 인식아래 다양한 무역관련 변수들이 10년 후 어떻게 변할지를 전망하고, 그 변화가 우리 무역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을 제시한다. 특히 우리 경제 및 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테마들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먼저 FTA의 확대, BRICs의 부상 등 세계경제의 변화하는 패러다임을 소개한다. 그리고 글로벌기업의 경영활동,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새로운 시장과 소비자의 등장, 정보기술에서 생명공학기술로 변화하는 바이오 경제의 패러다임 등을 차례로 살펴본 다음, 한국무역의 미래와 가야 할 길을 심도 있게 진찰해보며 마무리한다.

목차 : 머리말

- 제1장\_ 변화하는 세계경제 패러다임
- 제2장\_ 글로벌시장의 무한경쟁
- 제3장\_ 새로운 시장·소비자의 등장
- 제4장\_ 기술과 혁신이 미래산업을 이끈다
- 제5장\_ 한국무역의 미래와 가야 할 길

## 2005년

22. 공저(7명), 『장보고와 동북아경제중심전략』 서울: 박영사, 2005, 2. 293p.

## 2004년

21. 오용석, 『현대 중국의 대외경제정책.정책원리의 흐름과 운용메커니즘』 서울: 나남출판, 2004. 9
20. 공저(26), 『중국경제를 읽는 지혜』 서울: 비봉출판사, 2004, 2. 307p.

책소개 : 중국 경제성장에 관한 칼럼집. 기업, 학계, 정부에서 중국 문제를 다루고 있는 많은 전문가, 권위자들의 중국 경제의 성장을 바라보는 시각에서부터 중국경제 각 분야의 의미있는 변화의 소개,한국의 대중 전략의 방향에 대한 모색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영역에서 이루어진 진지한 고민을 담고 있다. 또한 중국을 깊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최근의 저서들에 대한 서평을 실음으로써 중국 이해의 길잡이 역할을 한다.

목차 : 발간사

- 칼럼
- 중국식 시장경제
- 중국 경제에서 소강이 가지는 의미
- 중국의 무서운 세계시장 질주
- 중국경제의 부상을 보는 한 시각
- 중국:WTO 신체제로의 변환은 가능한가?
- 중국, 부동산 시장의 거품논쟁 가열
- 동북 3성 재개발과 새로운 성장동력에 대한 기대
- 한중일 합작:정책협력의 관점
- 중공 16전대회 이후중국 지도체제의 개편과 공산당의 장래
- 중국의 3대 주요산업단지의 제휴와 경쟁
- 중국의 괴력 어디서 나오는가
- 대 중국 IT 수출 현황 및 대책

중국경제의 미래:위기인가 지속성장인가  
 인민폐 환율에 대한 중국의 입장  
 중국의 WTO 가입과 외국계 은행의 중국진출  
 중국 산업집적에 따른 전략적 협력의 강화  
 중국경제의고도성장  
 중국은 저만치 가는데 우리는  
 한걸음 물러서서 중국을 바라보자  
 한,중 경제교류의 확대와 변용  
 중국정치외교의 모법생,후진타오  
 중국의 부실채권 문제  
 중국의 시장경제 발전과 전략과 불균형 성장  
 중국의 최근 조세 동향  
 부상하는 중국과 상생하는 길  
 중국 가족기업의 제도분석  
 서평

## 2003년

19. 공저(15), 『중국진출전략 대특강』 서울: 중앙M&B, 2003, 12. 320p.

책소개 : 한국 제1의 투자대상국이자 세계의 시장으로 떠오른 중국. 이 책은 전문가 15인들이 중국경제의 시스템에 대한 일반적 이해부터 시장환경, 투자환경, 마케팅전략, 채권관리 그리고 현지 경영전략에 이르기까지 그 위협과 기회요인을 체계적인 구성으로 풀어냈다. 한국외국어대학교의 '매경-외대차이나 CEO 과정' 및 '기업체 위탁 중국지역 전문가 연수과정', '외국학종합연구센터'의 중국지역 정보에서 논의한 내용을 엮은 책.

목차 : 편자의 글

추천사

PART1 : 중국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PART2 : WTO 가입과 급변하는 경제환경

PART3 : 시장 분석과 투자전략 수립

PART4 : 현지 기업경영 매뉴얼

중국 진출 관련 추천도서

중국 진출 관련 추천사이트

필진 소개

18. 공저(8명), 『동북아경제협력: 통합의 첫걸음』 서울: 박영사, 2003, 12. 456p.

17. 공저(12명), 『新東北亞經濟論』 서울: FKI미디어, 2003, 3. 595p.

## 2000년

16. 吳勇錫, 동북아경제협력구도에서 韓半島의 통합적 발전방향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지역연구회 시리즈 00-02, 2000년 11월, 75p.

논문개요 : 남북한의 정치경제적 통합과 통일이후 국가통합발전전략을 동북아 변수활용 및

지경학적 연계구도에 입각하여 제시함.

- 목차 : I. 序論 = 5
- II. 韓半島 統合的 發展의 制約要因과 東北亞 變數 = 9
1. 한반도 통일의 제약요인 = 9
  2. 한반도 통합적 발전에서의 동북아 변수 = 18
- III. 東北亞經濟協力構圖에서의 韓半島 經濟統合 推進方案 = 32
1. 통일 이전의 경제통합 여건 = 32
  2. 접근 방안 = 40
- IV. 南北韓 統一以後의 綜合的 發展 戰略과 構圖 = 53
1. 전략의 개념과 통일단계 = 53
  2. 거시적 통합발전 구도 = 57
  3. 기능적 통합발전 구도 = 64
- V. 結論 = 69
- 參考文獻 = 72
- Executive Summary = 76

## 1998년

15. Oh Yong-Suk, Editor & Co-author, *The Scheme of the Northeast Asian Economic Sphere and Potential for Regional Cooperations*, Korea Institute for Northeast Asian Studies, 1998, 256p.

논문개요 : 동북아 경제권의 구도를 전체지역 뿐만 아니라 환황해 및 환동해의 소지역권으로 고찰하고 이 지역 경제협력의 잠재력을 바탕으로 한 대도시 비즈니스 벨트화 등을 논함.

목차 :

14. 共著, 동북아지역의 경제협력구도와 전망 도서출판 삶과꿈, 1998년 3월, 412p.

## 1997년

13. 吳勇錫, 中國의 新貿易管理制度와 貿易構造變化, 大韓商議 韓中民間經濟協議會, 1997년 9월, 403p.

논문개요 : 중국의 개혁·개방과 WTO 가입에 대비한 최근까지 새로운 무역관리제도와 무역구조의 변화를 분석함.

목차 : 목차

- 제1장 中國의 對外貿易體制 改革 = 11
- 제1절 1980년대 이전의 貿易體制 = 11
- 제2절 1980년대 무역체제의 改革 = 15
- 제3절 1980년대 무역체제의 問題點 = 21
- 제4절 1980년대 무역체제 改革의 方向 = 26
- 제2장 中國의 新貿易管理 制度 = 31
- 제1절 무역관리 機構 = 31
- 제2절 수출입관리 制度 = 37

제3절 무역화물 通關 및 關稅 制度 = 49  
제4절 貿易換管理 制度 = 53  
제3장 中國의 改革以後 貿易推移와 構造變化 = 57  
제1절 개혁 이후의 貿易과 經濟成長 = 57  
제2절 80년대 이후의 輸出商品構造 변화 = 66  
제3절 80년대 이후의 輸入商品構造 변화 = 73  
제4절 交易地域構造 변화와 地方別 무역분포 = 82  
제5절 世界貿易에서 중국무역의 位相 변화 = 88  
제4장 世界 및 先進國 市場에서의 韓·中 輸出競爭力 分析 = 99  
제1절 世界市場에서의 韓·中 수출 비교 = 99  
제2절 先進國 市場에서의 韓·中 수출경쟁 = 105  
제3절 中國 輸出의 對韓 比較優位 要因 = 120  
제5장 展望 및 政策的 對應方向 = 133  
제1절 中國 貿易의 發展과 韓·中 輸出競爭 展望 = 133  
제2절 정책적 對應方向 = 140  
참고문헌 = 147

## 1994년

12. 共著, 黑龍江省 産業經濟環境, 大陸研究所, 1994년 12월, 402p  
논문개요 : 중국 흑룡강성의 주요 경제지역을 조사한 결과를 정리한 보고서임.
11. 共著, 東北亞 經濟圈과 韓半島 發展戰略 (共著), 도서출판 길벗, 1994년 3월, 369p.  
논문개요 : 동북아시아 경제권의 형성 잠재력을 분석하고 동북아 경제협력의 구도에서 한국의 경제발전과 남북통일의 가능성과 전략을 제시함.

## 1993년

10. 吳勇錫, 中國의 對外貿易과 韓·中 輸出競爭, 對外經濟政策研究院 정책연구 93-36, 1993년 12월, 149p.
9. 共著, 동북아시아의 한민족, 도서출판 경실련, 1993년 12월, 345p.  
책소개 :  
목차 : 001. [서론]  
002. 한민족에게 동북아는 무엇인가?/김성훈  
003. [세계경제의 블럭화 현상과 동북아 경제권]  
004. 두만강 개발과 동북아 경제권/김성훈  
005. 동북아 경제권과 황해연안역의 개발방향/이정식  
006. [동북아 경제권과 남북 경제협력]  
007. 동북아 경제권과 남북한 경제교류협력의 과제/이상만  
008. 동북아 경제권의 형성과 남북한 경제교류협력의 전망/오용석  
009. [동북아 경제권과 한반도 통일방안]

- 010. 현시기 통일논의의 재조명/유재현
- 011. 남북한 정치,군사적 신뢰구축을 위한 동북아 6대국 평화회의
- 012. 창설/이장희
- 013. [동북아 지역의 교민현황과 우리 민족의 나아갈 길]
- 014. 동북아에 있어 우리 민족의 지위와 역할/강만길
- 015. 동북아 지역의 교포현황과 정책과제/이중훈
- 016. [동북아 경제권과 한민족의 역할]
- 017. 동북아 경제권과 한민족의 역할/유재현
- 018. [민간주도의 통일운동 실천과제]
- 019. 시민단체가 지향하는 민간통일운동의 방향/서경석
- 020. 통일실천에 있어서 남북경협의 의의와 전개방향/김성훈
- 021. 남북한 정치적 군사적 화해를 위한 실천과제/이장희

8. 吳勇錫, 中國의 技術導入政策과 中日技術協力, 對外經濟政策研究院 정책연구 93-07, 1993년 3월, 145p.

논문개요 :

목차 : 목차

- 序言 = 3
- I. 中國의 技術導入政策 배경 = 9
- I.1. 中國의 科學技術 수준 = 9
- I.2. 中國의 과학기술정책과 기술도입 = 12
- I.3. 과학기술개혁정책과 기술도입환경 변화 = 17
- II. 中國 기술도입정책의 基調와 메카니즘 = 29
- II.1. 기술도입정책의 목표와 원칙 = 29
- II.2. 도입기술 선택의 기준 = 36
- II.3. 기술도입정책결정 제도와 과정 = 47
- II.4. 기술도입정책결정의 구조적 특징 = 55
- III. 中國의 기술도입 추이, 성과 및 전망 = 61
- III.1. 工業現代化와 기술도입 문제 = 61
- III.2. 기술도입 推移 = 69
- III.3. 기술도입의 성과와 전망 = 78
- IV. 中日기술협력의 문제 및 전망 = 89
- IV.1. 일본의 對中 투자 및 기술이전 = 89
- IV.2. 中日기술협력의 방법과 내용 = 94
- IV.3. 中日기술협력의 문제점 : 事例를 중심으로 = 104
- IV.4. 中日기술협력의 中長其 전망 = 114
- V. 정책적 시사점 및 대응 = 119
- V.1. 韓·中 기술도입의 비교 = 119
- V.2. 韓國의 기술도입 문제점 = 127
- V.3. 韓國의 정책대응 = 134
- 참고문헌 = 141

## 1992년

7. 共著, 부산 21세기: 國際化시대의 發展戰略, 釜山日報社, 1992년 9월, 270p.

## 1991년

6. 共著, 東北亞 經濟協力の 與件과 展望, 對外經濟政策研究院 정책연구 91-20, 1991년 12월, 373p.

5. 吳勇錫, 中國 經濟特區戰略의 評價와 韓國企業의 對應, 對外經濟政策研究院 政策연구 91-05, 1991년 4월, 178p.

논문개요 :

목차 : 제1장 序論 = 11

제2장 中國의 對外開放化 政策의 展開 = 15

제1절 對外開放政策의 背景 = 15

제2절 對外開放化의 展開過程 = 25

제3절 沿岸開放化政策의 目標 = 30

제3장 中國 經濟特區의 意義와 性格 = 39

제1절 經濟特區의 戰略的 意義 = 39

제2절 經濟特區의 體制的 性格 = 44

제3절 經濟特區의 地域經濟的 性格 = 49

제4장 中國 經濟特區 戰略 成果의 評價 = 69

제1절 總量的 成果分析 = 69

제2절 外引內聯 戰略의 成果 = 84

제3절 體制改革實驗 戰略의 成果 = 93

제5장 中國 經濟特區 外國人投資環境의 評價와 展望 = 107

제1절 外國人投資誘致制度 = 107

제2절 外國人投資環境의 評價 = 120

제6장 韓國 企業의 中國 經濟特區 進出과 對應 = 147

제1절 韓國 企業의 特區進出 狀況과 展望 = 147

제2절 韓國 企業의 中國特區에 대한 認識轉換의 必要性 = 152

제3절 韓國 企業의 中國特區 活用戰略 = 159

제7장 要約 및 結論 = 167

參考文獻 = 173

## 1990년

4. 吳勇錫 編著, 韓國과 社會主義圈의 關係發展 및 南北韓關係 變化의 展望 (編著), 對外經濟政策研究院, 1990년 6월, 168p.

## 1988년

3. 吳勇錫, 共產圈經濟의 脫마르크스 經濟學, 슬라브研究社, 서울, 1988년 7월, 430p.

#### 1978년

2. 吳勇錫, 臺灣의 製造業과 工業化政策推移分析, 國際經濟研究院, 1978년 12월, 총 131쪽.  
1. 吳勇錫, 臺灣의 經濟開發6個年計劃, 國際經濟研究院, 1978년 6월, 총 80쪽.

### IV. 其他 著作 (최근 실적 순)

#### 2004년

18. 오용석, “위생조개구이(爲生早改求異)-하루 빨리 개혁하고 차별화하라!” 한국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 『월간 지방의국제화』 2월호(통권 제86호)

#### 2003년

17. 오용석,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대한 경기도의 대안적 접근,” KRI Newsletter, 9월호(제4권 제9호, 통권 43호)

#### 2002년

16. 오용석, “동북아 비즈니스중심국가, 어떻게 이를 것인가: 국제적 도시기능 확충을”, KDI경제정보센터, 『나라경제』 제141호(2002년 8월), 15-18쪽  
15. 오용석, “남북한 경제협력과 동북아 경제협력의 연계 전략”, 한국토지공사, 『통일과 국토』 제9호(2002년 봄/여름호), 18-28쪽.

#### 1999년

14. 오용석, “경제선진화를 위한 의식개혁,” 『여성자원금고』 여름호(통권 10호),

#### 1997년

13. 吳勇錫, “韓·中 經濟關係의 評價와 發展方向”, 대한상의 한중민간경제협의회, 『한중경협소식』 제46호(1997년 8/9월), 18-22쪽.  
12. 吳勇錫, “中國의 地域開發構圖와 揚子江 流域 開發④”, 대한상의 한중민간경제협의회, 『韓中經濟協소식』 제45호(1997년 7월), 20-25쪽.  
11. 吳勇錫, “中國의 地域開發構圖와 揚子江 流域 開發③”, 대한상의 한중민간경제협의회, 『韓中經濟協소식』 제44호(1997년 6월), 10-16쪽.  
10. 吳勇錫, “中國의 地域開發構圖와 揚子江 流域 開發②”, 대한상의 한중민간경제협의회, 『韓中經濟協소식』 제43호(1997년 5월), 12-23쪽.

9. 吳勇錫, “中國의 地域開發構圖와 揚子江 流域 開發①”, 대한상의 한중민간경제협의회, 『韓中經協소식』 제42호(1997년 4월), 12-17쪽.
8. 吳勇錫, “중국의 WTO 가입 무엇이 문제인가?” 대한상의 한중민간경제협의회, 『韓中經協소식』 제39호(1997년 1월), 8-13.
7. 吳勇錫, “對中國 投資의 效果的 接近方法과 進出戰略”, 대한상의 한중민간경제협의회, 『對中國 投資의 效果的 接近方法과 戰略』대중국투자설명회 자료, 1999년 1월 28일

#### 1994년

6. 오용석, “세계경제의 블록화 추세와 동북아 경제권,” 개혁정치 민주개혁정치모임, 1994년 3월, 27-34쪽.
5. 오용석, “경제블럭화 추세와 우리의 대응”, 통일한국 평화문제연구소, 1994년 2월, 34-38쪽.

#### 1990년

4. 오용석, “남북한 경제교류는 통일의 지름길이다” 월간 언론과비평, 1990년 8월, 92-96쪽.
3. 吳勇錫, “蘇聯은 우리 經濟에 어떤 對象인가? -韓·蘇經協의 接近方向과 先決課題”, 經濟社會開發院, 經社院 포럼, 1990년 7월, 3-11쪽.

#### 1989년

2. 吳勇錫, “중국의 經濟改革과 進出戰略”, 세계평화교수협의회, 廣場 제191호, 1989년 7월, 94-105쪽.

#### 1988년

1. 吳勇錫, “外國人投資環境과 성공적인 中國進出 方向”, 民族知性 제28호, 1988년 6월, 125-131쪽.